

태풍 뿌라삐룬 북상 비바람에 피해 속출

제7호 태풍 '뿌라삐룬'(PRAPIROON) 북상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비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시설물이 부서지고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오는 3일 태풍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뿌라삐룬 북상

1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 있는 제7호 태풍 '뿌라삐룬'이 본격적으로 북상하고 있다. 태풍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29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로 북서진했다. 태풍은 당초 제주 서쪽 바다를 지나 3일 새벽시각에 전북 군산으로 상륙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기압골 영향으로 위치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동쪽으로 이동, 3일 새벽 제주를 지난 뒤 오전 9시에 여수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 예상 지점은 여수 북북동쪽 약 50km 부근 육상이다.

이후 영남지역을 통과해 3일 오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태풍 산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태풍의 최대풍속은 27m/s, 강풍 반경은 250km다.

◇ 보성 218mm...순간 최대 풍속 23.4m/s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보성 북내 218mm, 흥도 214.5mm, 흑산도 159.4mm, 영광 낙월도 148.5mm, 구례 지리산 피아골 133mm, 구례 지리산 성삼재 132mm, 곡성 옥과 111.5mm 등을 기록했다.

보성·구례·영광·신안군(흑산면 제외)·흑산도·흥도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순천·화순·곡성·장흥·완도·장성·해남·무안·함평·목포·고흥·여수·광안·거문도·조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가기도 23.4%, 무등산 20.1%, 진도 서거차도 19.4%, 여수공항 18.9% 흥도 18% 등의 순간 최대 풍속이 기록됐다.

오는 3일까지 100~250mm의 비가 내리겠다. 전남 남해안은 순간 최대 풍속이 30% 내외로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3일까지

광주·전남 시설물 부서지고 침수 피해 잇따라 내일 영향권...지자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서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폭우·강풍 피해 잇따라

태풍 북상으로 강한 비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보성군 회천면 저수지 옥 일부가 유실돼 보성군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전 9시에 여수시 중앙여고에서 터미널 편도 2차선 도로에 주변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1개 차로가 통제 중이다.

오전 7시45분께와 8시12분께에는 보성군 보성을 주택과 봉산리에서 80대 여성이 빗물에 고립됐으며, 이모(73·여)씨가 토사에 갇혀 발목 부상을 입었다.

오전 6시46분께에는 보성군 미력면 쪽 도로에 토사가 유실돼 교통이 통제됐다.

오전 6시6분께 보성읍내 아파트 주변 도로와 다른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각각 차량 30대와 22대가 물에 잠겼다.

주택 침수 피해는 신안 2가구, 해남 15가구, 무안 6가구, 영광·장흥 2가구로 집계됐다. 여수에서는 주택 1가구가 반파되기도 했다.

농경지는 장흥·보성·해남·고

흥·신안 등 전남 5개 시·군 2121ha가 침수됐다.

무안에서는 닭 농가 1동이 물에 잠겨 닭 6000마리가 폐사했다.

오전 11시 기준 전남에서는 소방 당국에 총 38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돼 배수 26건 안전조치 12건이 이뤄졌다.

광주에서는 오후 12시43분께 광주 서구 마북동 한 도로에서 가로수 1그루가 쓰러져 복구 작업 중이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11시2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실종된 김모(74)씨의 행적이 이날 광산구 황룡강에서 최종 확인돼 경찰 등이 수색하고 있다.

강한 비바람으로 목포권 25개 항로 중 7개 항로가 통제되고 있다. 여수권 15개 항로, 안동권 13개 항로 대부분이 통제 중이거나 자체 피항한 상태다.

최남규 기자



예멘 난민 수용 반대 외치는 제주도민들

정을 촉구했다.

6월30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난민대책모임단체를 비롯해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무사중 제도 폐지 및 난민법 개

4대강 16개보 수질 정보 오늘부터 공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계 16개 보 모니터링 종합정보를 2일부터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을 통해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종합정보는 기존에 환경부(수량, 수질, 수생태), 국토교통부(하천, 기상청(기상), 한국수자원공사(댐·보 운영)) 등에서 가지고 있던 보 모니터링 자료들을 한 곳에 모은 자료다.

공개되는 자료는 수질 및 수량 측정자료, 보 설치 및 개방 전·후 수행된 연구 보고서, 항공 촬영된 경관 영상 등 11개 분야 31종이다.

별도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지도에 표시된 16개 보를 클릭하면 선택한 보의 모니터링 자료를 한 번에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다음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사용자의 의견을 받은

뒤에 편의기능 보완 등 시스템 개선 및 안정화 작업 후 9월부터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강태구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은 "이번 종합정보 서비스는 기존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보 모니터링 자료를 한 곳에 모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료의 제공은 물론 국민들이 직접 현장의 상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양방향 소통 장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광양철강공장서 작업자 설비에 끼어 숨져

6월 30일 오전 7시30분께 광양시 광양국가산업단지 내 한 철강공장에서 작업자 김모(39) 씨가 공장설비에 끼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김 씨가 침전된 쇠가루를 걸러내는 자동화설비 인근에서 작업 중이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업주 홀로 일하는 가게만 턴 40대 영장

장성경찰서는 6월 29일 업주 홀로 일하는 가게만 턴 혐의(절도)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장성군 한 미용실 카운터에 놓인 손가방에서 30만원을 가져가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여수·순천·전북 정읍의 미용실·당구장·기념품 판매점을 돌며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7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여성 혼자 일하는 가게를 물색한 뒤 업주가 출근시간대 청소를 하고 있거나 손님이 많아 바쁜 틈을 타 현금만 훔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출소한 뒤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동남아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600여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월29일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로 운영총책 김모(36)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손모(20)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한 뒤 인터넷이나 SNS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00여 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배팅금을 받아 이를 다시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는 방법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 등 모집책들은 인터넷과 SNS에 '매일 첫 충전 시, 투자금의 10%를 덧붙여 배팅금을 충전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범기간 절도행각' 순대 훔친 4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6월29일 PC방·시장에서 지갑과 순대를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에 광주 북구 한 PC방에서 손님이 자리에 두고 간 9만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다.

정씨는 5월31일 오후 3시에 광주 북구 모 시장 국밥집에서 1만원 상당의 순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정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정씨가 누범기간 광주 서구 일대에서 지갑을 훔쳐 되판 정황을 확인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노래방 종업원 폭행·감금 20대 구속

부산 중부경찰서는 1일 아무런 이유없이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A(21)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5시에 부산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B(24)씨를 주먹으로 20여 차례 폭행해 양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다니면서 술병을 깨 위협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 등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